

성경적 청소년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요구하다

김광석(서울송곡교회 담임목사)



한국 청소년들의 사망 유형 중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초·중·고교생 자살자는 101명에 달했다. 매일 2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2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통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5~24세 청소년의 사망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자살로 조사됐다. 이 연령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007년 13.2명, 2008년 13.5명, 2009년 15.3명으로 3년간 계속 증가했다. 자살 다음으로 많은 사망 유형은 교통사고였다. 2007년에는 10만명당 9.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08년 9.2명, 2009년에는 8.4명이었다.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나 데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상급 학교일수록 수치가 올라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모두 101명의 학생이 자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 1명, 중학생 27명, 고등학교생 73명이었다.

(경향신문, 2012년 4월24일자)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겪었고, 7명은 학교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2012 청소년 통계'를 2일 발표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청소년(9~24세)의 8.8%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는 15~19세의 경우 '성적 및 진학 문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 변화'(12.6%), '외로움·고독'(11.2%) 등의 순이었다.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8.1%)과 '직장 문제'(15.8%), '외로움·고독'(15.4%) 등을 꼽았다. 청소년의 69.6%는 학교생활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66.5%)에 비해 1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설문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4.4%에 불과했다. 교육방법 만족은 36.8%, 교사(교수와의) 관계에 만족은 43.5%였다.

(경향신문, 2012년5월2일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 있는 이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수치화된 통계로 그들의 삶을 엿보게 되니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통계로 나온 것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 긍정이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을 무겁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삶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살얼음판을 걷어가는 것과 같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그리고 과연 손을 쓴다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든다.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 처방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백악이 무효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화되고, 그들을 위해 수많은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였지만, 통계상으로 나온 수치들로 볼 때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침수담을 경각하는 농부처럼 비 오지 않는 하늘 탓만 하며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어서 안 되었다면 이제 성경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

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직접 실행하여 검증해보고,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면 지속해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성경적 청소년관, 어디서 출발 것인가?

성경적 청소년관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은 많지 않다. 다만 청소년 시절이 나타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청소년관을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등이 10대 시절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외에 다른 인물들의 10대 시절은 나와 있지 않다. 이 시대에 걸맞게 필요하고 적용하고 싶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경 본문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청소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은 나이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면 성경에 있

는 모든 말씀의 적용 대상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장 19절~20절)”라는 말씀에서 “너희는”에는 성도인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성도가 된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자라가기까지 유예 시켜 놓으라는 말씀은 없다. 성도라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구분이 없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에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성경에서 말하는 실마리가 있다. 성경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성도라면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하지만 성경 밖에서는 청소년들을 피교육자적 관점에서만 보고, 언제나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그 결과 청소년이 스스로 할 가능성을 몰라버려 가두고 죽이고 만다. 모든 통료가 차단된 청소년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좌절 외에는 없다.

청소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라

성경은 비록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도 성인들 못지않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요구한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는 예외 없이 누구나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봉사의 일을 해야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될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도 깨어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필자는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지난 10년간 직접 적용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 이 시대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먼저 “온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훈련이다.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이 아닌 함께 가야 한다. 예배는 주일에

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한 사람을 위한 “봉사”에 있기 때문이다. “온전”의 과정을 거쳐서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 봉사 중에서 최선의 봉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몸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다. 리더훈련 역시 제자 훈련과 마찬가지로 10주 동안 진행을 한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최소 8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디오 테후서 2장 2절 말씀인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비전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예배와 훈련을 통해 “온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한 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 훈련이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훈련 후에 봉사의 장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 봉사의 장은 제자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후배들을 맡아 후배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학생 리더”가 되는 것이다. 학생 리더로서 후배들의 신앙과 확信的 걸침이 이루어지며, 후배들 역시 학생 리더 자신처럼 제자훈련을 받고 또 다른 학생 리더로 세워져서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믿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라

필자는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가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학생 리더”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 후배들을 맡아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

는 것을 시행했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교사의 역할을 하게 했다. 이들은 강요나 억지가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학생 리더”로 섬기게 했다. 결과, 성인 교사들보다 뒤지지 않았다. 섬김과 봉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했다. 무기력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및 성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봉사의 일”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학업도 자기 주도적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후배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경적 청소년관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소년관은 다음 아홉 청소년들 역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새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전모가 드러난다. 신앙교육의 피교육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그들도 교육의 동반자로 주체적으로 하나님 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청소년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성, 한양대학교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M.A., Ph.D.)을 수료했다. 성도교회, 사랑교회, 사랑교회로 목장을 거쳐 현재 서울송곡교회 담임목사, 학교법인 송곡학원 초빙교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최종승을 청소년에게 훈련 01까지』(국제저술문화)가 있다.